

농산물·농업인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시급

폭염일수 증가·평균 최고기온 상승...농작물 피해에 가격 상승 이어져 치명률 높은 온열질환 예방 시스템·폭염 저감 기술 적용 등 변화 시급

매년 더위와 관련된 통계가 갱신되는 등 폭염의 여파로 농촌지역은 물론, 농업인들의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가격이 상승을 이끌어 농가의 경영위험을 높이고, 소비자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된 '기후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폭염일수와 평균 최고기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평균 폭염 일수는 줄곧 늘어 2018년에 31일로 가장 많았고, 전국 평균 최고기온은 1973년 17.7도에서 지난해 18.6도로 0.9도 상승했다.

올 7월만 해도 전국 162개 관측지점 가운데 한 곳 이상 폭염이 관측된 날은 26일이고, 7월 19일엔 역대 최고인 144개 관측지점에서 폭염이 확인됐다.

기상청도 올 8월 이상고온 발생 일수가 평년보다 많거나 비슷할 확률이 40% 이상이라고 발표하는 등 더위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폭염은 농업에도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 농업 관련 보험 통계를 통해 연간 피해 규모를 산출해보면 그 결과를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폭염 관련 보상은 2016년 1826건에서 2017년 6415건으로 훌쩍 뛰더니, 2018년에는 1만3169건으로 급증했다.

심지어 지난 2021년엔 24만9067건으로 피해액만 734억4700만원에 달했다.

연구원은 기후 열대화의 심화로, 폭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사고 발생 시 치명률이 높은 농업분야 온열질환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영농교육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폭염 기간 동안, 모니터링과 상시적인 경고메시지를 통해 '폭염 회

피' 생활이 가능한 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물적 피해의 경우 폭염 피해가 감소하고 있는 축산분야를 보면 알 수 있듯, 차열망과 차광막, 차광도포제, 안개 분무 시설을 설치하고 고온에 강한 신종종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라고 설명했다.

현재 농업 분야는 폭염을 사전대응과 사후대응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는데, 기후위기로 인해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현 시스템 재점검과 농산물 수급 변화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목별, 농업활동 형태별, 지역별, 시설별 폭염 저감 대책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폭염 취약성을 분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맞춤형 폭염 피해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설별 저탄소 폭염 저감 기술을 적용하는 등 변화가 시급하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미흡한 제도 보완도 문제다. 긴급 보상은 물론, 농작물 재해보험의 강화 필요. 보상 단가 현실화를 비롯해 농작물 피해 보장 품목의 확대, 요율 및 산정 기준 현실화 등 중장기적으로 농업인 경영안정망 확충이 중요하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연구원은 "앞으로 폭염으로 인해 농작물 일부 품목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농산물 수급 대응 차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폭염과 가뭄 등에 강한 품종개발과 재배 방법 등의 연구에도 꾸준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 18일 담양 달빛무월마을에서 열린 농협 광주본부 '다문화가족 농촌정착 지원과정' 교육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다문화가정, 주민과 교류활동·문화 체험하며 농촌 정착 돕는다

농협 광주본부 교육 운영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지난 17일과 18일 담양 달빛무월마을에서 다문화가족 60여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농촌정착 지원과정' 교육을 운영했다.

농협은 교류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이해도를 높이고 이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지원하

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한국농업·농촌의 이해 강의 ▲가족소통 프로그램 특강 ▲한국문화 체험(전연연 색, 한과만들기) ▲가족공감·소통 체험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에 참여한 참가자는 "너무 특별한 교육을 통해 한국 문화와 농업·농촌의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지

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성신 본부장은 "농촌의 많은 다문화가정의 이민여성들이 어려움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아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쌀의 날 기념 쌀 소비촉진 캠페인



전남 10대 브랜드 쌀 홍보도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제9회 쌀의 날을 맞아 지난 17일 목포시청에서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홍보와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캠페인에는 박종탁 본부장과 정재현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장, 이재철 NH순해 전남총국장, 안중팔 농협전남노동조합 위원장 등 범농협 인직원 20여 명과 박홍률 목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은 목포시민들에게 우리 쌀 소비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목포시민과 시청 관계자들에게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과 전남 쌀 대표 브랜드 '품광수두' 증정용 쌀을 전달하며 전남 쌀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박종탁 본부장은 "전남 쌀은 엄격한 품질관리로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며 "전남농협은 연간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소비촉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우수한 전남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수협 전남본부, 소비촉진 행사 22일 수산물 시식·할인 판매

수협중앙회 전남본부(본부장 주홍보)는 오는 22일 전남도청에서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남산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마련됐다.

수협은 우선 전남도청과 함께 도청 구내식당 이용객에게 전복 버터구이와 반건조 우럭조식을 점

심 메뉴로 제공한다.

또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완도금일수협과 진도군수협, 해남군수협 등 관내 9개 수협의 대표 수산물 시식행사와 할인판매를 진행한다.

주홍보 본부장은 "앞으로 전남본부는 수산물 소비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힘을 보탬 계획"이라며 "오는 10월 제6회 어색백세 전남 제철 수산물직거래 장터 등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원예농산물 가격 안정세 전환

농식품부, 수급 불안시 비축물량 출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날 집중호우와 이달 태풍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던 원예농산물의 소비자 가격이 최근 일조량 증가 등 기상 여건 호전으로 안정세로 전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고온,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한 안정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배추의 이달 중순 소비자가격은 포기당 5928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0% 낮았고, 무는 개당 2925원으로 7.0% 저렴했다.

다만 배추와 무의 소비자가격은 이달 상승보다

는 15.2%, 11.9% 각각 높았다.

농식품부는 "계절적 특성으로 8~9월은 배추, 무의 가격이 연중 가장 높게 형성되는 시기"라며 "앞으로 고온과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한 병해 등의 발생이 높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농식품부는 수급이 불안할 경우 배추 5800t, 무 2500t 등의 비축 물량과 계약 출하 물량을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숙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자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와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전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